

팬데믹·기후위기에 ‘탈성장론’ 주목

유엔 IPCC 최근 보고서 인용

유럽연구위 ‘포스트-성장’ 연구

투자은행들 “투자 참고” 권고

수십년간 부대접을 받아 오던 ‘탈성장 운동’(degrowth movement)이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경제전문 인터넷매체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탈성장론자들은 경제성장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며, 성장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구를 망가뜨리고 미래를 어렵게 하는 시점이 이미 왔거나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수십년간 정치적 변방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사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을 되돌아볼 계기가 생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런 기류에 따라 탈성장론의 아이디어들은 주류로부터 인정을 받는 폭을 넓혀가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최근 발간한 주요 보고서에서 탈성장론을 인용했다.

유럽연구위원회(ERC)는 최근 대표적 탈성장

론자 중 한 명인 기오르코스 칼리스 바르셀로나자치대 교수에게 실제적인 ‘포스트-성장’ 정책들을 연구토록 약 1000만 달러(130억 원)의 연구비를 배정했다. 유럽의회는 내년 봄에 ‘성장 너머’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참석할 전망이다.

미국 웰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탈성장론이 힘을 받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기후 의식이 있는’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 이익을 늘리는 것을 끝없이 원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생각일뿐만 아니라 결국은 해롭기까지 하다는 게 탈성장론자들의 지적이다.

세계 경제는 2005년 이래 지금까지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진 규모가 갈수록 증가했으며, 연간 성장률을 2%로 가정하더라도 100년 후에는 규모가 현재의 7.2배가 된다.

이런 상태로는 지구가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낮출 방법이 없다.

칼리스 교수는 “성장이 연간 2%나 3%만 해도 엄청난 것”이라며 복리 계산과 똑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커지는 ‘지수함수적 성장’의 특성을 지적하고 “행성(지구)의 물리적 현실과 양립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성장론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불필요한 재화의 생산을 제한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의 수요를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런 탈성장론의 사고방식은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탈성장론자들이 비현실적이라며 기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탈성장론이 옳다고 믿는 이들조차, 정치적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녹색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 성장을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전환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전체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하며, 그 후로도 급격히 그리고 급속히 감축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에너지는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물, 광물, 목재 등 다른 자원도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 생태론자인 사이트 고헤이 일본 도쿄대 철학과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지구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대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적게 남아 있을수록 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델러스 이그제큐티브 공항에 필드에 전날 에어쇼 도중 추락한 항공기 잔해가 흩어져 있다. 전날 에어쇼 도중 B-17 폭격기와 벨 P-63 킹코브라 전투기가 충돌한 뒤 추락해 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미국 에어쇼 공중충돌 사고 최소 6명 사망

미국 에어쇼에서 구식 항공기 2대가 공중 충돌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사법당국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 델러스 공항에서 열린 ‘윙스 오버 델러스 에어쇼’에서 보잉 B-17 폭격기와 벨 P-63 킹코브라 전투기가 비행 중 충돌한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관람객 4000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켈러 지역 시장인 아민 미자니는 “육군 참전용사이자 은퇴 조종사인 테리 바커가 B-17에 타고 있었다”며 그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기체가 큰 B-17에는 통상 4~5명이 탑승하며, P-63은 조종자 혼자 모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 에어쇼를 주최한 미 공군기념사업회(CAF)는 설명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에어쇼에서 비행기 항로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이 에어쇼에 참가한 항공기는 2차대전 당시 활약한 항공기다. B-17은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 주력 폭격기였으며 P-63도 여러 전장에서 사용됐다.

미국에서 에어쇼 도중 항공기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코네티컷 하트퍼드에서는 조종사 과실로 B-17 폭격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했다. 2011년 네바다주 리노 에어쇼에서도 P-51 머스탱이 기체 결함으로 관중석 앞으로 떨어져 11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이스탄불 도심 폭발사고...6명 숨지고 81명 부상

에르도안 대통령 “비열한 공격”

폭발사고 용의자 검거 배후 조사

3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변화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사 당국은 다음날 폭발 사고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민들이 13일(현지시간) 폭발이 일어난 시내 베이올루구(區) 이스티클랄가(街)를 떠나고 있다. 이날 이스티클랄가에서 화염이 솟구치며 강력한 폭발이 발생, 최소 6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러를 통해 터키와 터키 국민을 패배시키려는 노력은 여제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의심할 여지 없는 테러 공격

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탄불 주지사에게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테러의 냄새가 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폭탄이 터진 경우와 배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에는 검사 5명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머스크, 트위터 계약직도 5명 중 4명 해고

유명인들 이용 중단 잇따라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정규직 직원에 이어 계약직도 대거 해고했다고 현지 매체 플랫폼포머(Platformer)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계약직 5명 중 4명은 지난 12일 자신들이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무용 톨인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 슬랙(Slack)과 다른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트위터 전체 계약직 직원은 5500명이며,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4400명에 달한다고 플랫폼포머는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인도를 포함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제매체 CNBC는 계약직 해고는 이들과 함께 근무했던 정규직 직원들에게도 사전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익명을 요구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달 28일 트위터를 인수한 후

7400여 명의 정규직 직원 가운데 약 절반인 37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 인수 후 셸럽(유명인)들의 트위터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히든강의 기적’으로 유명한 체슬리 쉐렌버거 전 기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트위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이나 링크인,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미국의 유명 흑인 배우 우피 골드버그도 지난 7일 자신의 방송 터뷰(The View)에서 “오늘로써 트위터를 끝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TV 드라마 ‘그레이아나토미’를 제작한 유명 방송작가 겸 프로듀서 손다 라임스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완료 이틀 만에 트위터를 떠났다.

‘러브 송’(Love Song)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세라 버렐 리스도 지난달 30일 “그동안 재미있었어, 트위터. 다른 SNS 플랫폼에서 보자. 트위터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라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